

“ 마지막 아담 · 살려주는 영 ”

■ 이종윤 원로목사

고린도전서 15:45 이하에서 사도 바울은 두 인간 모형을 보여주고 있다. 첫 사람 아담과 둘째(또는 마지막) 아담이다. 전자는 육의 사람으로 생령(living Soul)이 되었고 후자는 살려주는 영(life-giving-Spirit)이 되었다 한다. 이 구절은 신구약 성경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메시지로 알려져 있다.

이 두 인간 모형은 인류의 대표자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했다. 첫 사람 이전엔 아무도 없었다. 마지막(또는 둘째) 아담이란 아담과 그리스도 사이엔 아무도 없다는 것이다. 언약의 역사에 다른 분은 없다. 노아, 아브라함, 모세, 다윗도 인간을 대표하는 언약자가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둘째 사람(또는 마지막 사람)인 고로 그 이후에도 없고 그리스도가 언약의 마지막 사람이다. 아담과 그리스도는 개별적인 한 사람이 아니라 모든 인간을 대표하는 집단 인격체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개별적인 모든 인간들은 아담이라는 인간 모형에 속하든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인간 모형에 속해야 한다. 아담 인간 모형에 속하면 아담의 행적에 따른 결과를 최초 인간 아담과 함께 짚어줘야 하고, 예수 그리스도 인간 모형에 속하면 그리스도의 행적에 따른 결과를 그리스도와 함께 공유하게 된다. 어느 쪽에 속하느냐에 따라 우리는 두 인격적 모형이 가지고 있는 생명 또한 각각 공유하게 되는 것이다.

첫 사람 아담과 마지막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 따라 태어난 존재다

언제 첫 사람이 생령이 되었고, 마지막 아담이 살려주는 영이 되셨나? 부활의 첫 열매인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실 때 살려주는 영이 되셨다. 신자의 부활한 생명이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부활한다는 것은 미래 사할일 뿐 아니라 현재 일이다. 사도 바울은 성도의 부활을 ‘이미 그러나 아직은 아니다’(Already, but not yet) 구조로 설명한다.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에 참여할 신자는 아직은 아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부활에 동참할 것이기 때문이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혼란을 가져올 것이 아닌가? 그러나 그리스도와 성령의 존재론적 연합보다는 주시는 사역, 섬기는 사역 즉 기능적 연합으로 해석된다.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죽은 자다. 동일한 시공에 살고 있지만 세상에는 살아 있으나 죽은 자가 있고, 죽어도 사는 자가 있다. 두 인간 모형의 창조와 탄생의 유사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담은 살았으나 죽은 자요 예수 그리스도는 죽었으나 산자가 되셨다. 율법적으로 보면 전자는 불순종을, 후자는 철저한 순종으로 설명된다. 신학적으로는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영을 상실했느냐 계속 담지하고 있느냐로 답변할 수 있을 것이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에게 거하시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라는 영생의 약속을 이 글을 읽으시는 여러분께서 받으시고 누리시길 기도한다.

-한국장로신문 [제 1547호] 2017년 4월 29일 발췌-

코로나19 바이러스 사태가 심각단계로 격상된데 이어 서울지역 특히 서울교회 인근 강남 서초 송파지역에서도 확진자가 계속 확인되고 있어 부득이 정부와 총회의 코로나19 감염예방지침에 최대한 협력하고 이웃을 배려하는 마음으로 우선 이번 주일 전체 성도들이 참여하는 예배 대신 주일 1부 예배시간에 목사 장로 직원 등 소수의 인원만 모여 드리는 예배를 실시간 영상으로 제공하고자 하오니 다소 불편하시더라도 가정에서 함께 참여하여 드리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새벽기도회도 별도 공지 시까지 부목사님의 인터넷 영상말씀으로 드리게 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양예배는 보내드릴 순서지를 통해 가족들과 함께 드리시되 설교순서에는 서울교회 유튜브 설교영상으로 대신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주일 1부 예배시간에 제공되는 실시간 생방송 접속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오전 9시, 아래에 기재된 서울교회 공식 유튜브 채널 링크를 클릭하시거나 유튜브에서 [서울교회 공식 유튜브]를 검색하시면 실시간 예배 영상을 보면서 함께 예배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또 사정상 1부 실시간 예배에 참여하지 못하신 분은 2부나 3부 또는 편리한 시간에 아래 유튜브 채널을 클릭하시면 그대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접속이 기술적으로 어려운 분은 사무국(02-558-1106)으로 연락하여 별도 안내받으시길 바랍니다.

비록 교회에서의 공동체 예배가 아니더라도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경건성을 꼭 지켜주시고 아울러 온종일 주일성수의 거룩성도 훼손되지 않도록 부탁드립니다.

또 앞서 안내하여 드린대로 영유아유치부, 유초등부는 부서 해당 교역자들이 SNS로 부모님들께 보내드리는 5분 메시지로 대신하며, 사랑부는 가정에서 1부 예배시간에 제공되는 실시간 인터넷 영상으로 예배드리도록 합니다.

빠른 시일내에 코로나19 바이러스 사태가 종식될 수 있도록 계속 집중적인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서울교회 당회 드림

우리의 비전 (vision)	① 세계 복음화(Evangelization of the whole world)	서울교회QR코드 
	② 교회 천국화(Kingdomization of the whole church)	
③ 문화 기독교화(Christianization of the whole culture)		

부 목 사 서명철 장석남 조원영	교육전도사 김은숙	협동목사 김의창 심우진 전재홍
전도사 박미라	선 교 사 전광해(서아사), 이은준강혜정, 양재성이현주(지흐스타), 이경엽, 조남혜(방글라데시), 조범연김희정, 우상식김경옥(인도), 서광중 이성일(인도네시아), 김용진황경혜(말라위), 김영호서향정(러시아), 허창범현미(순일본), 김병형·오정녀(케냐), 김종일백순미(외국인 노동자), 박명성(총회), / 이삭 비스파파, 사지, 에복(인도), 스프로터베로이, 필리몬 프란뜨, 수레시, 수비쓰 알로롱, 비사누보도 보디소프, 린롱, 수린존(방글라데시) / 김태식, 윤영목, 이금순, 김명일(군선교) / 정상찬홍성임(말라위), 이재을박병진(캄보디아), 이재훈박재연(마다가스카르)	





대한예수교 장로회
서울교회
 SEOUL PRESBYTERIAN CHURCH
 원로목사 **이종윤**
 Emeritus Pastor Lee Jong-Yun, Ph. D., D.D., D. D.



06280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로 51길 7
 7, Samseong-ro 51-gil, Gangnam-gu, Seoul Korea

Tel.558-1106 / Fax.558-2107
 http://www.iseoulchurch.or.kr/

“ 우리 주로 더불어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 ”

■ 고전 1:4-9

탄식과 신음과 눈물의 골짜기를 통과하고 있는 성도들의 과중한 고통을 우리 주님께서 잘 알고 계십니다. 경제적 압박이 가중되고 육체적 쇠약함과 고통이 증폭되는 인생인 것도 우리 주님은 너무나도 잘 아십니다.

1. 실패가 없으신 주님을 믿으라

‘미쁘시다’는 단어는 ‘믿을 만하다’, ‘신실하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믿을 만한 유일한 신이십니다.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는 말이 있듯이 세상에는 믿을 구석이 하나도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부모, 형제, 스승, 목사, 친구 그 누구도 사랑의 대상일 뿐이지 신뢰의 대상은 아닙니다. 인간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믿고 따를 유일한 대상은 후회할 적이 없으시고 실수나 실패할 일이 결코 없으신 진실하신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그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선언합니다. 지금 온 세계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힘들어 하고 있는 것도 주님은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이 재앙도 다 그의 통치권 안에 있는 일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된 수많은 믿음의 용사들이 다 믿음의 경주를 달린 자들입니다. 그들은 화평의 시대에 그렇게 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같이 말로 다 할 수 없는 심한 고통과 핍박 가운데서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믿음의 거장들로 살았습니다.

주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끝까지 지키시고 견고하게 하시는 데 ‘책임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케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서는 어떻게 우리를 책임할 것이 하나 없는 존재로 지키신다는 것입니까?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만일 우리에게 책임할 것이 눈곱만큼이라도 존재한다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은 헛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책임할 것이 있다면 누구도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2. 주님과 함께하는 교제를 즐기라

주님이 다시 오셔서 모든 눈물을 씻기시고 모든 상처를 싸매어 주시고 모든 환난과 고통에서 해방시키어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게 할 그날을 사모하며 인내하는 자들이 할 것은 우리를 버리시거나 떠나가지지 않으시고 항상 함께 하시는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즐겨워하는 일입니다. 이것이 모든 위협과 공포로부터 가장 자유롭게 사는 길입니다. 주님의 날을 사모하며 기다리는 자들은 결코 자신의 능력이나 재주를 의지하지 않습니다. 인간의 방책들이 무엇 이든 사람들의 버팀목이 어떤 것이든 그날이 오기까지 우리의 언변과 모든 지식에 풍족하게 하시는 주님의 은사를 더욱 사모합니다. 우리를 책임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케 하실 주님의 은총을 더욱 사모합니다.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더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합니다. 기도야말로 하나님과 함께 하는 최고의 교제의 수단입니다.

여기에 또 다른 위로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하고 계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베드로도 주님을 모른다고 세 번이나 부인한 경험을 했지만 그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해 주신 주님이 셧습니다. 누군가가 날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때 크게 그보다 더 큰 위로가 또 어디 있겠습니까?

맺는 말

우리가 믿고 있는 성경의 하나님은 믿을 만한 분이십니다. 진실하신 분이십니다. 한번 말씀하신 것을 변경하실 일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의 약속은 모든 것이 다 유효합니다.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실 것입니다. 이 땅에서 최고로 복된 주님과의 교제의 끈 단단히 붙잡는 사람입니다. 예배를 무엇보다 소중하게 여기십시오. 그 은총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그와 함께 하는 기도와 말씀 묵상의 시간을 소홀히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의 은혜를 더욱 풍성하게 내리시는 교회 공동체를 온전히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이 코로나의 위기 속에서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여러분의 삶 속에 차고 넘치시기를 소망합니다.

지난 주 서창원 목사 설교 요약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요 4:24)

주 일 예 배

Sunday Worship Service		
시 간	인 도	기 도
Time	Prsider	Prayer
I 오전 9시	전재홍 목사	전재홍 목사
II 오전 11시 20분	인터넷 영상	
III 오후 2시	인터넷 영상	

- 입례송 Prelude 오르가니스트
- 예배의 부름 Call to Worship마 21:9... 인 도 자
- 기 원 Invocation 인 도 자
- * 찬 송 Hymn6(8)..... 다 함 께
- * 신앙고백 Apostles' Creed 다 함 께
- * 성서교독 Responsive Reading ...129(종려주일)... 다 함 께
- * 송 영 Doxology 1(1) ... 다 함 께
- 기 도 Prayer 말 은 이
- 찬 송 Hymn141(132)... 다 함 께
- 성경봉독 Scripture Reading고전 1:10-11... 인 도 자
- 성도의 교제 Member's Fellowship 다 함 께
- 봉 헌 Offering 다 함 께
- * 봉헌송 Offering Hymn634(70)... 다 함 께
- * 봉헌기도 Offering Prayer 인 도 자
- 찬 양 Anthem 찬 양 대
- 새가족 환영 Welcome to Newcomers 다 함 께
- 설 교 Sermon“온전히 합하라!”... 서창원 목사
- * 찬 송 Hymn220(278)... 다 함 께
- * 축 도 Benediction 설 교 자
- * 주기도송 Lord's Prayer Song 다 함 께

오후 8시
* 표는 회중 모두 일어서는 표입니다. ()는 통일찬송가입니다.

◆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라 (엡 5:19) ◆
CANTANTES ET PSALLENTE IN CORDIBUS VESTRIS DOMINO

찬 양 대						헌 금 송		
예 배	찬양대	지휘자	오르가니스트	피아니스트	팀파니스트	찬양대	지휘자	피아니스트
I 부	가브리엘	백경화	이수정	박승기	윤주일	가브리엘		
II 부	할렐루야	류충기	차주연	김양언	윤주일	그레이스핸드벨	송재월	
III 부	임마누엘	유태왕	김윤지	이주희	윤주일	아멘관현악단	임범창	
찬양예배	베들레헴	임범창	안효주	박수강	윤주일	금주의 성구	행제들이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고전 1:10)	
영어예배	예루살렘							
수요 1부								
수요 II부	시 온	최유현	김예지	조현정				

찬 양 예 배

오후 5시 · 인도: 가족 중 어른, 설교 서명철 목사

- 목 도 다 함 께
- 성 시 요 16:33 인 도 자
- 찬 송 347(382) 다 함 께
- 기 도 가 족 중
- 성 경 수 1:1-9 인 도 자
- 설 교 ... “강하고 담대하라” ... 인터넷 영상
- 찬 송 323(355) 다 함 께
- 주기도 다 함 께

수요예배

(개 인 기 도)

고난주간 특별새벽기도회 (인터넷 영상)

오전 5시30분 피아니스트 홍해관김양언박수강김복희
설 교 말은이

성 금요일 저녁기도회 (인터넷 영상)

오후 8시
설 교 심우진 목사

예배 및 집회시간 안내

구 분	시 간	장 소	
주 일 예 배	I 부 예 배	오전 9시	본당
	II 부 예 배	오전 11시 20분	
	III 부 예 배	오후 2시	
	찬 양 예 배	오후 5시	
	English Worship	오전11시20분	8층(802호)
수 요 예 배	II 부 예 배	오후 7시	웨스트민스터 홀
새 벽 기 도 회		오전 5시 30분(월 - 토)	본당

교 회 소 식

- ◆ 모 임
- 1. 정기당회 / 8일(수) 오후 7시 104호
- ◆ 알 림
- 1. 101호 예배 및 부서 모임
중고등부 예배 : 주일 오전 9시-10시 / 신앙강좌부 : 주일 오후 12시40분
- 2. 102호 예배
사랑부 예배 : 주일 오전 10시20분-11시
- 3. 403호 예배
영아부 : 주일 오전 9시-오후 6시
- 4. 602호 부서 모임
청년2부(다락방모임) : 주일 오후 3시30분-5시 / 새가족부 : 주일 오전 10시20분
- 5. 603호 부서 모임
소망부 : 주일 오전 10시-11시, 오후 1시-2시 / 청년1부(다락방모임) : 주일 오후 3시30분-5시
- 6. 609호
에바다부 성경공부 : 주일 오후 1시-2시30분
- 7. 701호 예배
유초등부 연합 예배 : 주일 오전 11시20분-12시30분
- 8. 706호 예배
유아, 유치부 예배 : 주일 오전 11시20분-12시30분
- 9. 802호 예배
영어예배부 : 주일 오전 11시20분-12시30분
- 10. 902호
디아스포라부 성경공부 : 주일 오후 1시-2시
- 11. 이번주 심방 일정
3-4, 6-3~4, 8-3, 9-5, 10-3, 12-4, 13-7다락방
- 12. 고난주간: 6일(월)-11일(토)까지 고난주간으로 지키며 주님의 고난을 묵상합니다.
- 고난주간 특별새벽기도회 - 5일(월)-11일(토) 새벽 5시30분(인터넷 영상 설교)
- 월 - 서명철 목사 / 화 - 심우진 목사 / 수 - 김의창 목사 / 목 - 전재홍 목사 / 금 - 장석남 목사 / 토 - 조원영 목사
- 성 금요일 저녁기도회(8시) - 심우진 목사(인터넷 영상 설교)
- 부활주일 새벽기도회(5시) - 김의창 목사(인터넷 영상 설교)
- 13. 4.12(주)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마지막 원수인 사망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날입니다. 부활절에 성찬예식은 코로나19 감염이 진정될 때에, 주일에 부활절 축하음악회와 함께 시행할 것이며, 4.10(성 금요일)엔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며 온 교회가 금식하기로 합니다. 금식한 헌금은 부활주일 헌금과 함께 하나님께 바쳐 부활하신 우리 주님을 증거하는 일에 사용될 것입니다.
부활절 예배는 4부로 나누어 하되, 이웃을 섬기는 심정으로 자신을 희생하는 자세로 시간조절(1부 9시, 2부 11시 20분, 3부 오후 2시, 4부 오후 4시)을 하여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 ◆ 장 례
- 1. **故 라재필 집사(13교구 라지용 집사의 부친, 김선혜 집사의 시부) / 3월31일(화) 별세, 4월2일(목) 발인**
- 2. **故 김경애 권사(16교구 백도환 집사의 모친, 석춘희 권사의 시모) / 4월2일(목) 별세, 4일(토) 발인**

“서울교회 새가족으로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지난주 출석현황(인터넷 영상예배)			
주일1,2,3부	찬양예배	주일예배 합계	새벽기도
1,644명	445명	2,089명	1,601명

수입, 지출 내역보고(3/29)		(단위 : ₩)	
월 일	적 요	수 입	지 출
3월29일	헌 금	20,862,000	
	말씀봉사비		26,947,000
	찬양대사레비		13,920,000
	급여		33,084,000
	교회학교교육비		7,570,000
	찬양운영비		7,140,000
	출 판 비		1,200,000
	인 건 비		6,072,000
	복리후생비		153,100
	통 신 비		143,000
	수도광열비		794,440
	차량유지비		1,782,970
	소모품비		1,218,430
	환경유지비		141,600
	수선유지비		242,000
	식당운영비		341,470
	합 계	20,862,000	100,750,010

코로나19 바이러스 지역확산에 따른 서울교회 영상예배 지침 -주일 영상예배 지침-

성도님들께서는 이번 주일예배 준비와 예배 자세에 관한 아래의 지침을 따라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 ① 먼저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공간을 정숙하게 구별하여 주십시오.
- ② 예배자로서의 옷차림에도 각별히 유의하여 주십시오.
자녀들에게도 복장과 자세 모두 교회에서 드리는 공예배가 장소만 바뀐 것이므로 영과 진리로 경건하게 예배드리도록 지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③ 예배 시작 5분 전, 마음을 모아 기도로 예배를 준비하여 주십시오.
실시간 영상은 5분 전부터 방송됩니다.
- ④ 예배순서에 적극 응답하며 참여하여 주세요. (“아멘” 댓글 작성 등)
* 기원기도, 신앙고백, 성경봉독과 설교 시 응답, 찬송, 봉헌 등
- ⑤ 축도(폐회기도) 후, 1-2분간 개인기도로 예배를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 ⑥ 헌금은 실시간 예배의 헌금시간에 맞추어 따로 준비한 접시나 바구니에 구별하여 드리시고, 추후 교회의 주일예배가 정상으로 회복이 되었을 때 함께 드리시면 됩니다.